

2015년 월별 전국 평균 기후

기간	평균기온(°C)	평균 최고기온(°C)	평균 최저기온(°C)	강수량(mm)	강수일수(일)	일조시간(hr)
1월	0.5	5.5	-3.9	25.0	9.4	183.8
2월	2.0	7.3	-2.5	25.5	6.0	178.7
3월	6.7	13.5	0.5	40.5	5.1	263.5
4월	12.7	18.6	7.4	126.0	14.2	189.4
5월	18.6	25.1	12.3	56.5	6.6	284.7
6월	21.7	27.1	17.2	96.6	9.6	198.0
7월	24.4	28.7	20.9	180.0	14.2	174.0
8월	25.2	30.2	21.4	111.1	9.9	207.9
9월	20.5	26.2	15.6	55.1	7.0	222.2
10월	15.0	21.5	9.6	64.3	5.8	244.3
11월	10.1	14.1	6.6	127.8	14.9	96.2
12월	3.5	8.2	-0.6	40.2	9.9	156.5
연	13.4	18.8	8.7	948.2	112.6	2,399.2

자료 : 기상청

주 : 2016년 1월 1일 현재 통계기준인 전국평균 지점으로 산출

2015년의 첫서리는 평년보다 2일 빠른 10월 5일 대관령에서 관측됐다. 첫얼음은 10월 17일 대관령에서 관측됐으며, 평년보다 5일 늦었다.

10월 26일에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해 서해상을 지나면서 서해5도, 서해안, 전라도 일부지역에서 27일에 황사가 관측됐다. 이 같은 '가을 황사'는 매우 드문 경우로, 통상 황사는 3~5월에 발생한다. 10월에 황사가 관측된 해는 2009년, 2014년, 2015년이었다.

<11월> 전국 평균기온은 10.1°C, 평균 최고기온은 14.1°C, 평균 최저기온은 6.6°C로 평년보다 각각 2.5°C, 0.5°C, 4.1°C가 높았다. 전국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은 각각 1973년 이래 역대 최고 2위를 기록했다.

평균 강수량은 127.8mm로 평년의 267.2% 수준이었으며, 1973년 이래 최다 2위였다. 강수일수는 14.9일로 평년보다 7.8일 많아 1973년 이래 최다 1위였다.

기압골 통과와 함께 북동기류의 유입으로 인해 11월 25일에 강원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첫눈이 관측됐다. 서울의 첫눈은 평년보다 4일 늦게 내렸다.

<12월> 전국 평균기온은 3.5°C로 평년보다 2.0°C가 높았으며, 1973년 이래 역대 최고 1위였다. 평균 최고기온은 8.2°C, 평균 최저기온은 -0.6°C로 평년보다 각각 1.2°C, 2.6°C가 높았다. 12월의 경우 기온은 -0.5~+0.5°C를 평년과 비슷한 범위로 본다.

평균 강수량은 40.2mm로 평년 대비 169%였으며, 평균 강수일수는 9.9일로 평년보다 3.3일 많았다. 12월의 경우 강수량은 85~115% 수준을 평년과 비슷한 범위로 본다.

12월에 엘니뇨(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 상승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자주 유입돼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아침 최저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평균기온이 크게 올랐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작용했다.

인구

■ 현황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농업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다출산 사회였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화 이전까지 인구 규모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산업화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위생·보건 환경이 개선되면서 사망률 하락,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6·25 한국 전쟁 이후 등장한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1955~63년생)는 인구의 급팽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1960년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해 산아제한 등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정책은 도시·현대화에 따른 핵가족화 등의 영향을 받아 효과를 발휘했고 인구 폭발 우려는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

1960년 6.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여 년 만인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까지 낮아졌다. 인구정책의 변화가 출산율의 하락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안팎이 유지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락세를 탔다.

2001년에는 출산율이 '초저출산'의 기준선으로 꼽히는 1.30명으로 줄었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출산율은 서서히 올라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이 됐다.

2013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다시 주저앉았지만 2014년에는 1.21명, 2015년에는 1.24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 인구 규모 및 구조 대변혁 시작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1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61만7천45명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인구가 1천만 명씩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을 보면, 1967년 3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62만5천 명씩 늘어 1983년 4천만 명이 되는 데 16년이 걸렸다. 4천만 명에서 2012년 5천만 명까지 증가하는 데에는 29년이 소요됐다. 세계 26번째로 인구 5천만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 5천216만65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는 4천395만9천375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는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女超)시대가 열리는 등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남녀 인구의 역전은 정부가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여성인구는 2031년 2천626만 명을 정점으로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성인구는 2029년 2천591만 명을 정점으로 2030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639만 명인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 2017년에는 712만 명으로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유소년(0~14세) 인구(684만 명)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게 된다. 고령인구는 2020년 800만 명, 2023년에는 900만 명, 2025년에는 1천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100만 명씩 늘어나는 기간은 계속 짧아진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4년 12.6%에서 2017년에는 14.0%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를 맞게 된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져 2026년 20.8%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된지 10년도 안 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014년 3천684만 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04만 명에서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 인구로 볼 수 있는 25~49세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다. 2010년 2천43만 명이었던 25~49세 인구는 2013년 1천978만 명으로 2천만 명대가 붕괴됐다. 이후 2014년 1천958만 명, 2015년 1천940만 명으로, 2019년에는 1천884만 명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추계됐다.

■ 출생

2015년 태어난 아이는 43만8천700명(잠정)으로 전년(43만5천435명)보다 3천265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3년(-4만8천95명·-9.9%), 2014년(-1천20명·-0.2%)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늘었다. 그러나 2015년 출생아 수는 2005년(43만5천31명), 2014년(43만5천435명), 2013년(43만6천455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8.6명으로 2013년부터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통계 작성 이래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집계돼 전년(1.21명)보다 0.03명(2.9%)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출산 기준선인 1.30명을 넘어서진 못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높아지다 2013년 '초저출산'의 기준선 아래인 1.19명으로 떨어졌다. 2014년에는 1.21명으로 소폭 올랐다.

연령별 출산율은 20대에서 감소하고 30대에서 증가했다. '노산'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30대 초반(30~34세) 여성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116.8명으로 집계돼 가장 높았다. 전년보다 3.0명(2.6%) 증가했다. 이어 20대 후반(25~29세)이 63.1명,

장래인구 추계

(단위: 인구·명, 인구성장률·구성비-%)

연도	총인구			인구성장률	인구 구조					
	계	남자	여자		0~14세	구성비	15~64세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1990	42,869,283	21,568,181	21,301,102	0.99	10,973,592	25.6	29,700,607	69.3	2,195,084	5.1
1995	45,092,991	22,705,329	22,387,662	1.01	10,536,828	23.4	31,899,511	70.7	2,656,652	5.9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0.84	9,911,229	21.1	33,701,986	71.7	3,394,896	7.2
2005	48,138,077	24,190,906	23,947,171	0.21	9,241,187	19.2	34,530,248	71.7	4,366,642	9.1
2010	49,410,366	24,757,776	24,652,590	0.46	7,975,374	16.1	35,982,502	72.8	5,452,490	11.1
2014	50,423,955	25,219,810	25,204,145	0.41	7,198,984	14.3	36,839,412	73.1	6,385,559	12.6
2015	50,617,045	25,302,520	25,314,525	0.38	7,039,594	13.9	36,953,331	73.0	6,624,120	13.1
2016	50,801,405	25,380,152	25,421,253	0.36	6,899,128	13.6	37,038,777	72.9	6,863,500	13.5
2020	51,435,495	25,645,177	25,790,318	0.28	6,788,432	13.2	36,562,967	71.1	8,084,096	15.7
2025	51,972,363	25,858,131	26,114,232	0.16	6,739,459	13.0	34,901,829	67.2	10,331,075	19.9
2030	52,160,065	25,901,365	26,258,700	0.01	6,575,330	12.6	32,893,289	63.1	12,691,446	24.3
2035	51,888,486	25,714,969	26,173,517	-0.19	6,247,391	12.0	30,890,308	59.5	14,750,787	28.4
2040	51,091,352	25,264,681	25,826,671	-0.39	5,717,528	11.2	28,872,500	56.5	16,501,324	32.3
2050	48,121,275	23,736,382	24,384,893	-0.80	4,783,197	9.9	25,347,026	52.7	17,991,052	37.4
2060	43,959,375	21,766,652	22,192,723	-1.00	4,472,656	10.2	21,865,175	49.7	17,621,544	40.1

자료: 통계청

주: 인구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임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연도	출생아수 (명)	사망자수 (명)	자연증가건수 (명)	조출생률 (천명당)	조사망률 (천명당)	자연증가율 (천명당)	합계출산율 (명)	출생성비 (명)	혼인건수 (건)	이혼건수 (건)	기대수명 (남)	기대수명 (여)
1995	715,020	242,838	472,182	15.7	5.3	10.3	1.634	113.2	398,484	68,279	69.57	77.41
1996	691,226	241,149	450,077	15.0	5.2	9.8	1.574	111.5	434,911	79,895	70.08	77.77
1997	668,344	241,943	426,401	14.4	5.2	9.2	1.520	108.3	388,960	91,160	70.56	78.12
1998	634,790	243,193	391,597	13.6	5.2	8.4	1.448	110.2	373,500	116,294	71.09	78.45
1999	614,233	245,364	368,869	13.0	5.2	7.8	1.410	109.6	360,407	117,449	71.71	79.22
2000	634,501	246,163	388,338	13.3	5.2	8.2	1.467	110.2	332,090	119,455	72.25	79.60
2001	554,895	241,521	313,374	11.6	5.0	6.5	1.297	109.1	318,407	134,608	72.82	80.04
2002	492,111	245,317	246,794	10.2	5.1	5.1	1.166	110.0	304,877	144,910	73.40	80.45
2003	490,543	244,506	246,037	10.2	5.1	5.1	1.180	108.7	302,503	166,617	73.86	80.81
2004	472,761	244,217	228,544	9.8	5.0	4.7	1.154	108.2	308,598	138,932	74.51	81.35
2005	435,031	243,883	191,148	8.9	5.0	3.9	1.076	107.8	314,304	128,035	75.14	81.89
2006	448,153	242,266	205,887	9.2	5.0	4.2	1.123	107.5	330,634	124,524	75.74	82.36
2007	493,189	244,874	248,315	10.0	5.0	5.1	1.250	106.2	343,559	124,072	76.13	82.73
2008	465,892	246,113	219,779	9.4	5.0	4.4	1.192	106.4	327,715	116,535	76.54	83.29
2009	444,849	246,942	197,907	9.0	5.0	4.0	1.149	106.4	309,759	123,999	76.99	83.77
2010	470,171	255,405	214,766	9.4	5.1	4.3	1.226	106.9	326,104	116,858	77.20	84.07
2011	471,265	257,396	213,869	9.4	5.1	4.3	1.244	105.7	329,087	114,284	77.65	84.45
2012	484,550	267,221	217,329	9.6	5.3	4.3	1.297	105.7	327,073	114,316	77.95	84.64
2013	436,455	266,257	170,198	8.6	5.3	3.4	1.187	105.3	322,807	115,292	78.51	85.06
2014	435,435	267,692	167,743	8.6	5.3	3.3	1.205	105.3	305,507	115,510	78.99	85.48
2015P	438,700	275,700	163,000	8.6	5.4	3.2	1.240	105.3	302,900	109,200	-	-

자료 : 통계청

주 : 기대수명은 출생시 기대수명을 말함

30대 후반(35~39세)은 48.3명 순이었다.

그러나 20대 후반의 출생아 수는 0.3명(0.5%) 감소했고, 30대 후반은 5.1명(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20대 초반(20~24세)의 출산율도 12.5명으로 전년보다 0.6명(4.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전년보다 0.19세 상승했다. 산모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5년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은 23.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성비는 2015년 105.3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3~107명이면 정상적인 성비로 본다.

■ 사망

2015년 사망자는 27만5천700명(잠정)으로 전년보다 8천8명(3.0%) 증가했다. 하루 평균 755명이 숨을 거두는 것으로, 전년보다 22명 늘어난 것이다.

2015년 사망자 수는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70~80대에 진입한 인구가 늘어난 탓이다.

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4명으로 전년보다 0.1명(2.6%) 늘었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 최저 수준인 5.0명을 유지하다가 2010년 5.1명, 2011년 5.1명, 2012년 5.3명으로

올라섰고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2015년 연령별 사망률(해당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은 90세 이상과 2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줄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90세 이상으로 195.2명이었다.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그 다음이 80대(71.4명), 70대(23.3명), 60대(7.6명) 순이었다.

남자 사망자 수는 70대(4만4천 명)가, 여자는 80대(4만9천 명)가 가장 많았다. 2015년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높게 집계됐다. 특히 50대 사망률 성비는 2.9배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2015년 자연증가수(출생아수-사망자수)는 16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4천743명(2.8%) 감소했다.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인구 1천 명당 자연증가수를 말하는 자연증가율은 2015년 3.2명을 기록, 전년보다 0.1명 줄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 혼인·이혼

2015년 혼인 건수는 30만2천900건(잠정)으로 전년보다 0.9% 줄었다.

월별 혼인 건수는 1월 2만8천400건, 2월 2만900건, 3월 2만7천200건, 4월 2만4천700건, 5월 2만8천 건, 6월 2만6천700건, 7월 2만3천600건, 8월 2만1천800건, 9월 1만9천 건, 10월 2만3천200건, 11월 2만6천100건, 12월 3만3천300건이었다.

연도별 혼인 건수는 2010년 32만6천 건, 2011년 32만9천 건이었다가 2012년 32만7천 건, 2013년 32만3천 건, 2014년 3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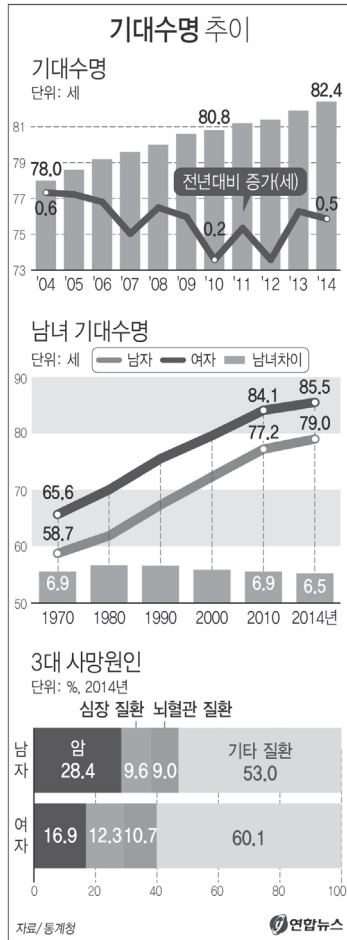
5천 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이혼 건수는 10만9천200건(잠정)으로 전년도보다 5.5% 감소했다.

월별 이혼 건수는 1월 9천300건, 2월 7천800건, 3월 9천200건, 4월 8천800건, 5월 8천300건, 6월 1만 건, 7월 9천500건, 8월 8천700건, 9월 8천800건, 10월 9천800건, 11월 9천100건, 12월 9천800건이었다.

연도별 이혼 건수는 2010년 11만7천 건, 2011년 11만4천 건, 2012년 11만4천 건, 2013년 11만5천 건, 2014년 11만5천 건이었다.

■ 기대 수명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명표'를 보면 2014년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각각 79.0년, 85.5년이다. 남녀 전체적으로는 82.4년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5년, 여자는 0.4년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서는 남자는 4.5년, 여자는 4.1년 증가했다. 남녀를 합친 기대수명(82.4년)은 2013년보다 0.5년, 2004년보다 4.4년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2013년과 같은 6.5년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1985년(8.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다.

2014년 기준으로 40세인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40.2년, 46.3년이다.

60세인 남자는 22.4년, 여자는 27.4년이다. 2013년과 비교해 2014년의 연령별 기대수명은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2014년 태어난 남녀 아이가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각각 56.8%, 77.9%다. 2013년보다 남성은 1.6%포인트, 여성은 1.2%포인트 증가했다. 2004년보다는 남녀 각각 16.2%포인트, 13.5%포인트 높아졌다.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79.0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2년, 여자(85.5년)는 2.4년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성의 경우 스위스(80.7년), 여성은 일본(86.6년)이다.

한국의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인 6.5년은 OECD 회원국 평균(5.2년)보다는 높지만 프랑스(6.6년), 포르투갈(6.4년), 일본(6.4년) 등과 비슷했다.

2014년 출생아는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 남자는 28.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었고, 여자 역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16.9%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남자 9.6%, 여자 12.3%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은 남녀 각각 9.0%, 10.7%로 3위였다.

남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80세 여성은 심장질환(13.1%)으로 숨질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

2013년과 비교해 2014년 출생아의 사망확률이 증가한 원인을 보면 남자는 폐렴(0.7%p)과 심장질환(0.5%p) 순으로 높았다. 여자는 심장질환(0.4%p)과 고혈압성 질환(0.4%p)이 늘었다. 반면 남자는 뇌혈관 질환(-0.3%p), 자살(-0.3%p) 등이 줄었다. 여자는 뇌혈관 질환(-0.8%p), 당뇨병(-0.2%p)의 사망확률이 감소했다.

2004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폐렴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숨질 확률이 늘었고,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은 가장 많이 줄었다.

암이 제거된다면 2014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4.8년, 여자 2.8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남자는 각각 1.3년, 1.1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제거되면 기대수명이 각각 1.4년, 1.2년 증가했다.

65세 남성이 암에 걸리지 않으면 남자는 4.0년, 여자는 2.1년 기대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 인구·가구 구조

통계개발원이 2010년에 시행한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3인 이상 가구는 1985년 총가구의 80.8%(773만6천)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2010년엔 1·2인 가구가 48.2%(834만7천)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인 가구 가운데 한 부모 가정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1995년 39만 가구에서 2010년 86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1995~2010년 인구는 8.9% 늘었지만 가구는 33.8% 증가해 가구 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995년 3.4명에서 2010년 2.69명으로 감소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율이 높아지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난 탓에 유배우율은 1995년 77.6%에서 2010년 66.6%로 감소했다.

여성가구주 비율은 1995년 16.6%에서 2010년 25.9%로 증가했다. 2010년에는 1인 가구 중 여성(222만 명)이 남성(192만 명)보다 많았다. 40~44세 1인 가구주의 미혼율은 1995년 29.1%에서 2010년 54%로 급등했다.

도·농 간 비교를 보면 1인 가구 비율 자체는 농촌에서 높았지만 증가 규모는 도시에서 더 컸다. 2010년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전남(28.9%), 경북(28.8%), 강원(27.9%) 순으로 높았으며 경기(20.3%), 울산(20.7%), 인천(20.8%) 순으로 낮았다. 1995~2010년 증가한 1인 가구 중에서 서울(47만)과 경기(55만)의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